

# “상생! 한가위”… 삼성·현대차 등 납품대금 조기지급

명절맞이 자금수요 집중부담 완화  
상품권·현금화 등 상생경영 힘써

국내 대기업들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대금을 보름 가량 앞당겨 지급하는 등 상생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 주요 그룹은 명절을 맞아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부담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을 돋기 위해 납품대금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1조2350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차



그룹은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약 369억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추석 연휴 전 그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한편, 추석 맞이 임직원 사회봉사 주간 동안 소외이웃 및 결연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민족 최고의 명절 인설 및 추석 연휴 기간 전후를 ‘임직원 사회봉사 주간’으로 정하고, 그룹 임직



원들이 소외이웃 및 사회복지단체를 방문해 생필품과 명절 음식, 온누리상품권 등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과 LG그룹은 아직 구체적인 지급 규모를 확정지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삼성은 수년전부터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

난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물품대금을 최대 12일 앞당겨 지급했다. 당시 1차 협력사들에게 조기 지급하는 추석 물대는 약 5000억원 규모(삼성디스플레이 약 2000억원)다. 올해도 삼성은 추석 물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LG그룹은 지난해 LG전자(5200억원), LG화학(2300억원)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LG전자는 올해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에 약 6500억원 정도를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가 다가오는 민속명절 추석을 맞아 거래 기업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일반 자재 및 원료 공급사, 공사 참여 기업 등 포스코와 거래하는 기업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결제 대금을 받았으나 추석을 앞두

고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은 매일 돈을 받는다. 거래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포스코가 배려한 것이다.

월 단위로 정산하는 협력사의 협력 작업비도 14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21일까지 지급한다. 원래대로라면 다음달 2일 지급할 예정인 자금을 중간 정산 개념으로 평균 13일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 기업 대금 조기 집행액은 총 17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 업체들도 협력사의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확정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추석 대목 전통시장 북적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9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제사용품 등 장을 보러 온 사람으로 북적거리고 있다. /연합뉴스

## 국내기업 94% “경제 침체국면 진입했다”

### 추석 경기 상황 대체적으로 부정적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에 대해 기업의 94%가 동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52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추석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를 별도로 이같이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내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에 대해 94.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4.1%, ‘동의하지 않는다’는 1.6%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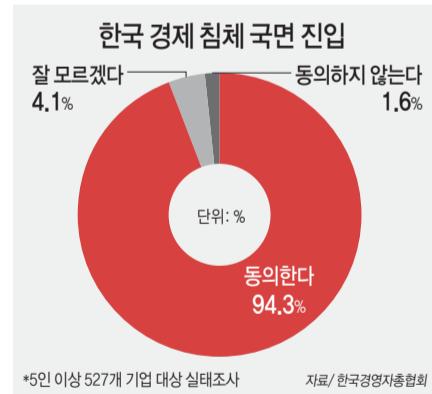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88.9%였으나 300인 미만 기업에선 95.8%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이런 진단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추석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악화됐다’(17.9%), ‘악화됐다’(43.1%) 등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61.0%로 나타났다.

이어 ‘작년과 비슷하다’는 35.7%였고, ‘개선됐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급할 평균 상여금 액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70.2%로, 지난해(72.1%)보다 1.9%포인트 줄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



상 기업은 작년보다 4.1%포인트(77.3%→73.2%), 300인 미만 기업은 1.5%포인트(70.9%→69.4%)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105만 6000원으로 작년(102만 4000원)보다 3만 2000원(3.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기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경총은 진단했다.

추석 연휴 기업들의 휴무일수는 지난해보다 3.5일 줄어든 평균 4.7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보다 4.8일 줄어든 4.9일, 300인 미만 기업은 3.1일 감소한 4.7일이었다.

지난해 황금연휴로 불리며 평균 8.2일에 달할 만큼 이례적으로 추석 연휴가 길었던 탓에 올해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추석연휴 승차권·주유 할인… 카드혜택 ‘풍성’

### 대중교통 이용객 위한 승차권 할인 마트·백화점 등 할인혜택도 꼼꼼히

카드사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속속 할인 혜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귀성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할인행사를 진행하거나 장거리 차량운행 고객을 위해 주유비 할인을 제공하는 것. 추석맞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혜택을 활용하면 추석 연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필요한 혜택이 담긴 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철도 고속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경하는 고객들을 위해 승차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비씨카드는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 후 코레일, SRT, 고속 시외버스 승차권을 3만원 이상(누적금액) 결제하면 10%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해당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합산 것을 기준으로 한다.

KB국민카드는 코레일 승차권 구매 시 결제 금액의 최대 20%까지 포인트



적립해 주는 ‘레일 포인트 KB국민카드’를 출시했다. 레일 포인트는 30만원 이상이면 구매금액의 10%(월 최대 1만 5000점), 60만원 이상이면 구매금액의 15%(월 최대 2만점), 100만원 이상이면 구매금액의 20%(월 최대 3만점)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귀성길 장거리 차량 운행족을 위한 주유비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현대카드 X’를 이용해 다음달까지 SK주유소 이용 시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5%(최대 3만원 한도) 할인해 준다.

NH농협카드의 ‘올바른 오일 카드’는 GS칼텍스와 농협주유소를 이용하면 리터(L)당 100~150원을 할인해 준다. 다만 월 할인한도는 최소 1만원, 최

대 3만원까지며 전월 이용금액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추석 선물이나 제수용품을 구매할 때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할인 혜택이 담긴 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추석 연휴 비용을 줄일 방법이다. KB국민카드의 ‘KB국민 올쇼핑 카드’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인터넷면세점 등 쇼핑업종에서 10% 할인해주고, 우리카드 ‘카드의정석 쇼핑’은 전월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에 한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10% 할인을 제공한다. 롯데카드 ‘아임 하트풀(I'm HEAR TFUL)’도 대형마트 이용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며 신한카드 ‘미스터 라이프(Mr. Life)’는 주말이면 이마트, 흠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와 이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결제금액 5만원까지 10% 할인해준다.

카드사 관계자는 “꼭 지출이 필요한 대중교통이나 주유비 등에 집중해서 추석맞이 할인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사가 아니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카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사용하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보호무역·금리인상에도… 선진국 투자 늘렸다

### 부정적 영향 제한적… 회복세 이어질 것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주요 선진국의 투자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9일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의 ‘최근 주요 선진국 투자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의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고정투자는 2010~2017년 중 연평균 2.7% 증가하면서 금융 위기 이전인 2000~2007년 중 2.8%와 유사한 증가세를 회복했다. 지난해 투자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비해 8% 가량 높은 수준으로 확대됐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의 고정투자는 2010~2017년 중 연평균 5.2% 증가하며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2007년) 2조 7000억달러를 상회하는 3조

2000억달러로 확대됐다.

일본의 고정투자도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과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증가속도와 투자 규모 모두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대체로 회복했다.

2010~2017년 중 연평균 2.3% 증가했고 지난해 투자금액은 128조엔으로 금융위기 직전 수준인 122조엔을 웃돌았다.

반면 유로지역의 고정투자는 금융위기 충격과 재정위기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부진을 지속했다. 2010~2017년 중 연평균 1.0% 증가에 머물며 절대 투자금액은 지난해 2조 1000억유로로 위기 직전(2.3조유로)에 미달했다.

주요 선진국의 고정투자 증가는 건설 투자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투자를 견인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투자 회복기조의 지속 여부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글

화화주 기자 hjs89@